

## 절 구 考 (2)

金 光 彦

〈仁荷大學校 博物館長〉

1. 구유절구
2. 중국 절구
3. 일본 절구
4. 절구의 민족

나는 이미 삼불(三佛) 김원용(金元龍) 교수(教授) 정년퇴임(停年退任) 기념논총(紀念論叢) II에 우리네 절구의 형태, 쓰임, 만드는 법 따위에 관한 내용(절구고(考) 1)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 및 일본 절구를 설명해 가면서 우리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민족의 절구에 관한 민속을 소개한다.

### 1. 구유절구

당나라 말기인 5대십국(五代十國)(907~960) 때 유순(劉恂)이 쓴 영표록이(嶺表錄異) 권상(卷上) 용당(春堂)조에

‘용당은 둥근 나무를 구유처럼 파서 만든 것으로 구유 한 개에 공이 열 개를 쓴다. 남자가 나란히 서서 나락을 찧을 때마다 구유의 마구리를 친다. 모두 한 가지로 치는 이 소리는 북소리 같아서 수리(數里, 당(唐)의 1리(里)는 524m임)나 떨어진 데에서도 들린다. (春堂者以渾木剝而爲槽一槽兩邊約挑十杵男女間立以春稻梁敲磬槽絃皆有遍拍槽聲敲聞於數里)…’<sup>1)</sup> 는 귀절이 있다. (나는 이것을 고급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서 따 왔으나, 중국농업사연구(中國農業史研究)에 인용된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의 글 머리에는 ‘광남(廣南)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는 원문을 신지 않았다.)

또 남송(南宋)(1127~1279)의 주거비(周去非)가 쓴 영외대답(嶺外代答)(1178년 편찬)4, 풍토문(風土門) 용당(春堂) 조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정강(靜江, 광서(廣西)의 주림(柱林))의 민간에서는 벼를 거두어… 집 옆에 큰 나무 구유가 있어 밥을 지을 때에는 벼를 이에 넣고 찧는다. 그 소리는 절의 목어(木魚) 소리같으며 여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움직이므로 음률을 이룬다. 이를 큰절구(春堂)라 한다. 이 소리는 매일 해 질때까지 멀리 들린다. (靜江民間穫禾取禾心一莖稿連穗收之謂之清冷禾屋角爲大木槽將食時取禾舂于槽中其聲如□寺之木魚女伴以意運杵成音韻名曰春堂每日及日昃則春堂之聲四聞可聽)’<sup>2)</sup>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는 앞글 뒤에 ‘이 절구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 모양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고 뒤의 글에는 ‘용당은 쌀을 찧는 데 쓰는 연장’ 이라고 덧붙였다(1979 :

847).

광서(廣西)는 중국 남부이며 광남(廣南)은 베트남에 속한 지역으로, 이로써 우리는 구유절구가 중국 남부 및 베트남에서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313년에 나온 왕정(王禎)의 농서(農書)나 1639년에 나온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 송응성(宋應星)이 1637년에 낸 천공개물(天工開物) 그리고 일정기에 나온 중국 화북 및 만주지방의 농기구에 관한 보고서 따위에는 구유절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유절구는 주로 중국 남부에서 사용 되었고 현재도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에서 발명되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일본의 태안만려(太安萬侶)가 712년에 완성한 고사기(古事記)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일본에서도 이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길야지백(吉野之白)이 토막나무로 구유절구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주(祭酒)를 담갔다. 술을 올릴 때에는 북 마구리를 매우 능숙하게 치며 노래 부르기를…’ (又於吉野之白檣上作橫白而, 於其橫白釀大御酒, 獻其大御酒之時, 擊口鼓爲伎而, 歌曰…).

이 기사에 대해 삼륜무웅(三輪茂雄)은 ‘보통 절구(臼(臼))외에 구유절구(횡구(橫臼))도 있으며 동남 아시아 지방에서는 현재도 사용된다.…배(舟) 모양의 것으로 여러 사람이 나란히 서서 공이로 찡는다’ 고 하였다(1978 : 102).

또 그는 고사기전(古事記傳)을 쓴 선장(宣長)이 앞의 노래를 해설하는 가운데 ‘계중(契仲)이 보통 절구(臼)는 나무를 길이로 판 것이고 구유절구(횡구(橫臼))는 가로로 판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라고 한 부분을 지적 ‘선장(宣長)’ 은 동남 아시아에 배 모양의 절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쓴듯 하며 그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계중(契仲)의 설명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하였다(앞책 103 쪽).

이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는 적어도 8세기 이후에 구유절구를 매우 널리 썼으리라고 짐작된다.

절구질을 할 때 공이로 마구리를 가볍게 치면서 노래 부르는 일은 반드시 구유절구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여럿이 동안을 맞추는 동시에 노동의 피로움도 덜었던 것이다. 우리네도 이와같이 하였다. 곧 참나무 공이는 길이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 틈 사이로 곡식이 끼어들기 쉬우며 또 공이에 곡식 가루가 묻게 마련이므로 이를 떨구기 위해 공이를 들어올릴 때마다 절구 마구리를 가볍게 쳤다. 이 때문에 흔히 돌절구는 공이가 상하지 않도록 아가리의 안쪽 모서리를 조금 깎아서 숨을 죽여두기도 한다. 다만,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절구질을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 공이로 마구리를 치는 소리가 ‘사방에 들릴만큼’ 크지도 않거니와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을 뿐이다 (우리네 민요에 절구 노래가 매우 드문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에 건주어 구유절구질은 10여 명이 한꺼번에 하므로 공이에 끼이거나 묻은 것을 떨구는 실제적 효용 외에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공이로 절구 마구리를 리듬에 맞추어 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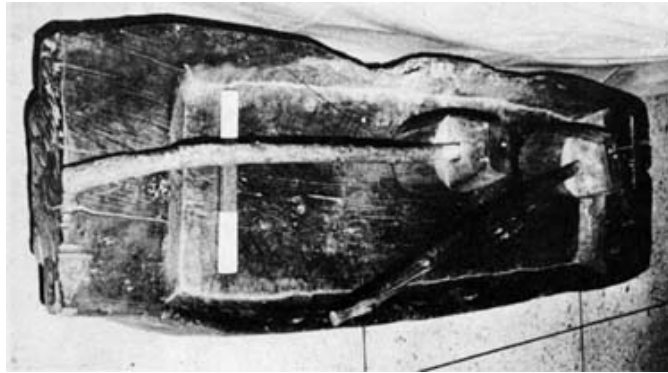


사진 1 떡구유  
(강원도 춘천시 천천  
국민학교 소장)

사진 1 떡구유  
(강원도 춘천시 천천국민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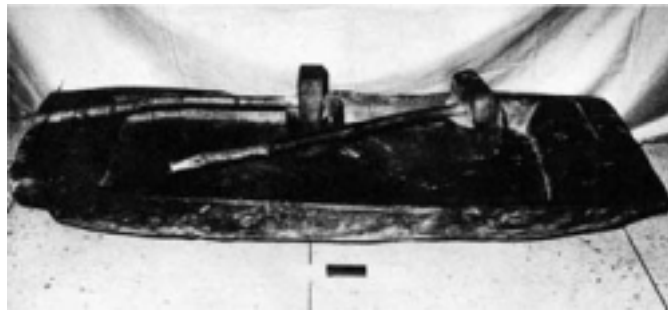


사진 2  
(사진 1의 옆 모습)

사진 2  
(사진 1의 옆 모습)



사진 3  
(가원도 화천군 원천국민학교 소장)

사진 3  
(가원도 화천군 원천국민학교 소장)

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또 이와같은 행위가 수반되는 지역의 구유절구는 일종의 악기 구  
실도 하였다. 실제로 동남 아시아 지방에서는 절구를 쓸 때 리드미칼한 소리가 울리도록 절

구 밑에 나무통을 장치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유절구를 썼을까.

나는 아직 이 사실을 문헌이나 현지조사에서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함경도 및 강원도 지방의 '떡깅' 으로 미루어 이것이 사용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진 1~3). 떡깅은 '떡구유' 의 사투리로 '구유 모양의 안반' 을 이른다. 이들 지방에서는 찰떡을 칠 때에는 상부가 편평한 이른바 안반을 쓰지만, 메떡은 반드시 이 떡깅에 넣고 네 사람 이상이 마주 서서 번갈아 가며 친다. 떡깅은 공이를 빗맞은 곡물이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편리하다.

이 떡깅은 본디, 곡식을 찧는 데에 쓰여지다가 디딜방아나 물레방아 따위의 연장이 출현하면서 기능이 바뀌어 떡을 치는 데에 이용된 것은 아닐까.

이와같은 것을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떡구유' 라 하였는데 그림1처럼 양 마구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황철산, 1960 : 49).

구유절구는 중국이나 일본에 있었던 만큼 우리게서도 썼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기의 명저라고 하는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1965년간) 제4권 제2부 기계공학조에도 구유 절구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원문을 옮긴다.

'In the Thang southerners used boat-shaped pestles stamping communally in long troughs...'

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당 시대에는 남부지방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 모양의 공이로 긴 구유의(곡식을) 찧었다...'

한편, 이 책의 일문(日文) 번역자(중강철량(中岡哲郎), 굴미상지(堀尾尚志), 좌등청언(佐藤晴彦), 산전윤(山田潤))들도 '...주형(舟形)의 공이(저(杵))와 세장(細長)한 확(발(鉢))이 쓰여졌다...' 고 원문 그대로 옮겼다(1978年 思索社刊, 中國の科學と文明, 第8卷, 機械工學, 上, 237쪽).

결론부터 말하자면 니담 교수는 착각에 빠졌던것 같다. '배 모양의 공이' 는 '배 모양의 절구' 이며 '긴 구유' 는 '긴 공이' 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저자는 주에 이 구절을 895년에 유순(劉恂)이 쓴 영표록이(嶺表錄異)에서 따왔음을 밝혔는데 원문은 앞에서 인용한대로 '큰 나무를 구유처럼 파서...(以渾木刻而爲槽...)' 로 되어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배 모양의 절구' 가 옳은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 이미 설명한대로 실제로 '배 모양의 절구' 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니담 교수는 용표록이의 내용을 잘못 알고 '배 모양의 공이' 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다. 앞 인용문의 바로 앞 부분이 그것으로(27, Mechanical Engineering 183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From Han references we know of mortars made of clay, of wood and of stone, materials to which stone ware was afterwards added...'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한(漢)시대의 문헌에 따르면 절구는 찰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재료로서 돌을 쓴 것은 뒤의 일이다...' 라는 뜻이 된다(앞의 일본인들도 대체로 이와같이 번역하였다).

니담 교수는 문헌의 출처에 대해 주에서 '예를 들면 전한서(前漢書) 권66의 진함(陣咸)의 이야기를 보라' 고 하였다. 이 부분은 또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가 그의 책(중국농업사연구(中國農業史研究) 844쪽)에 원문의 인용 없이 '(진함(陣咸)이 남양 태수 적에) 율(律)을 내어 사공(司公)으로 하여금 지구(地臼)와 목저(木杵)를 만들게 하고 방아질(舂精)이 거칠면 불기를 쳤다' 고 옮겨 놓았다.

문제는 원문의 '지구(地臼)' 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인데 나는 이미 절구고(考) I 에서 이것이 땅에 묻힌 작은 절구임을 밝혔다. 그러나 니담 교수는 '지구(地臼)' 를 글자 그대로 해석, '진흙으로 만든 절구' (...mortars made of clay)라고 하였던 것이다. 진흙이 아무리 차지다고 하여도 이것을 절구로 만들면 하루도 부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는 앞의 경우처럼 문헌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세기의 명저' 가 지닌 작은 흙이라고 하겠다. 한편 일문(日文) 번역자들도 이 부분에 마땅히 의문을 느껴 원문과 대조를 했어야 마땅하나 이들도 절구의 내용을 잘 몰랐던 까닭에(또는 원저자의 명성에 압도된 나머지) 지나쳐 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이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라면 번역자 주를 따로 붙여서 밝혀 놓았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하여 이 석호, 이 철주, 임 정대, 최 임순 교수 등이 이미 제1권을 낸 바있는데(1985년 을유문화사간(刊)),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주목하고자 한다.

니담 교수는 앞 글 인용에 이어 '공이는 또 농부가 밭에서 흙덩이를 깨는 데에도 썼으며 약제사나 연단가(煉丹家)들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이는 대나무로 만든 활 모양의 용수철에 매달아 쓰기도 하였다(지금도 있다)' 고 한 다음 주에서 '15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기사(技師)들도 공이에 용수철을 썼으며 그리시아에도 이러한 종류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고 덧붙였다.

'대나무로 만든 활 모양의 용수철(bamboo bow-spring)'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내리 쪼갠 공이를 들어올릴 때 힘을 덜려고 스프링 장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나 이것은 공이를 내릴 때 스프링의 작용으로 힘이 더 들게 마련이므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니담 교수는 앞 문장 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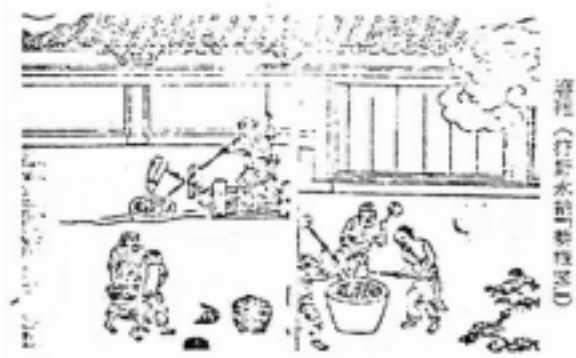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1210년에 제작된 곡식 떠는 그림을 보면 공이는 메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면서 그림을 곁들였다(그림2). 이것은 일본의 수야영납본 경직도(狩野永納本 耕織圖)로서 디딜방아를 짚는 옆에서 한 사람이 메공이를 번쩍 치켜든 모습을 그린 것이다.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의 ‘중국농업사 연구(中國農業史 研究)(853쪽)에도 같은 그림이 실려 있는데 통절구(돌절구인듯 함)에 세 사람이 메공이를 쥐고 절구질을 하는 장면이다. 이 그림은 명(明)나라 송종노각본(宋宗魯刻本)을 1676년에 일본에서 모사한 것이다. 한편, 1502년에 간행된 편민도찬(便民圖纂)의 농무도(農務圖)에도 같은 그림이 있으나 절구 가운데에 띠가 돌리고 공이는 검게 칠하였다(그림3). 특히, 공이의 메 부분이 짧은 것으로 미루어 떡을 치는 장면인듯 하다.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는 메공이에 대한 기록이 1210년에 편찬된 경직도시(耕織圖詩)와 931년에서 937년경에 나온 왜명유취초(倭名類聚抄)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중국에서는 진(晉, 930~946)나라 때 이미 널리 사용되었으리라고 보았다 (1979 : 853).

## 2. 중국 절구

우리네 농기구도 중국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다. 발굴 자료와 문헌을 통해 중국 절구의 모습을 살펴본다.

중국에서 절구를 황제(黃帝)라는 전설상의 인물이 처음 만들었다는 역경 계사하전(易經繫辭下傳)의 기록은 절구고(考) I에서 이미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는 단(段)(? ~1100 B.C.)나라 때 갑골문자(甲骨文字)나 주(周, 1100 ? ~256 B.C.)의 이(彝)문자(彝文字))를 통해서 중국 절구 및 공이의 초기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다. 곧, ‘진(秦)’이라는 글자가 그것으로 이는 두 손으로 공이를 쥐고 절구질하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갑골문자의 경우(그림4) 중앙 윗 부분의 공이 모습이 중국은 물론, 오늘날, 우리네가 쓰는 것과 같아 흥미를 끈다. 이(彝)문자의 것(그림5, 금문(金文))은 중앙상부의 획이 절구(잘록절구 ?)를 연상시키며 절구 공이를 치켜 든 인물 모습이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가장 오랜 절구는 1950년 하남성 단허(河南省 段虛)에서 나온 돌절구(그림6)이다. 이것은 통절구로서 키가 매우 낮으며 이에 비해 살은 투박스러울 정도로 두꺼운 편이다. 돌확을 연상 시키기도하나 아가리로 보아 절구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초기부터 적어도 한 대(漢代)까지 우리네 양념 절구처럼 매우 작은 것을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 무렵의 유적에서 나온 절구나 문헌에 묘사된 것들이 모두 소형이기 때문이다.

1956년 산둥성(山東省) 청도(靑島)의 전진(前秦)(351~394)유지(遺趾)에서 나온 공이(礮石製)는 길이가 12~3cm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전국시대(403~221B.C.)의 소진(蘇秦)과 장의(張儀) 등의 변설과 책략을 담은 전국책(戰國策) 위책(衛策)에

‘위나라 사람이 신부를 맞았다.…그녀가 방에 들어가 절구가 있는 것을 보고 드나드는데 걸리적거리므로 창밑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한즉 그 남편이 이에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후한서(後漢書) 113 일민전(逸民傳)에는 후한(125~220) 초기 협서성 량홍(陝西省 梁鴻)의 처 맹(孟)씨는 나이 설흔의 노처녀로서

‘똥똥하고 못생겼으며 검둥이었는데 돌절구를 들어올릴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하였다.

1972년 전한(前漢)(202B.C.~A.D.8)중기의 무덤(강소성(江蘇省))에서 나온 구리 절구(역시 통절구임, 사진4)는 무게가 4,844g이었으며(닷되 너흙 들이) 공이(구리)도 1,125g에 지나지 않았다. 공이는 아랫부분이 조금 굽어졌으나 윗 부분과 큰 차이는 없다. 이보다 앞서 1958년에는 호남성(湖南省)의 전한시대 무덤에서 역시 구리 절구가 나왔는데(사진5) 배가 약간 부르고(따라서 통절구이다) 굽이 달려서 만든 이의 숨씨를 느끼게 하나 아가리 지름이 8.4cm, 높이는 11.5cm의 작은 것이다. 공이(구리) 양끝은 조금 뭉툭하며 길이 20.5cm, 지름은 2.2~3.3cm이다.

또 강소성(江蘇省)의 한 나라 묘에서 나온 황색 조사암제(粗沙岩製)의 돌절구도 높이 14cm, 아가리 지름 16.7cm, 바닥 지름 13cm, 벽 두께 3cm로서 안은 둥그나 바깥은 네모꼴을 이루었다.

방에 두었던 절구를 창가로 옮기고 부인네가 들어 올렸다는 앞 기록과 출토 예들은 모두



사진 4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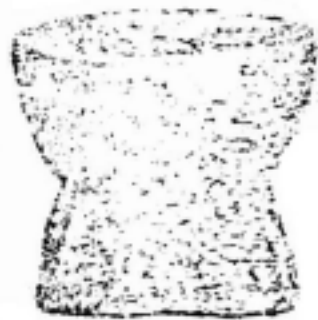


사진 6

당시의 절구가 매우 소형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다.

중국 역사 초기에는 곡물 생산량이 많지 않아 작은 절구로도 충분 하였을것이나 뒤에 이르러서도 작은 절구가 널리 사용된 것은 곡물을 찧거나 빻는 능률적인 연장, 예컨대 연자매, 디딜방아, 물방아 따위가 널리 보급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의 절구는 곡물 도정용으로보다(구유 절구를 쓴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양념 따위를 다루는 특수용으로 더 널리 쓰여졌다고 하겠다.

한편 이와같은 절구는 뒤에도 발굴되었다. 만주 흑룡강성(黑龍江省)의 고성(古城) 출토품은 갈색의 현무암제로서 아가리 지름 29cm, 깊이 17cm의 것이었으며 같은 지역의 금(金)(1115~1234)나라 터에서도 같은 유형의 절구가 나왔다.

이밖에 한(漢) 및 후한(後漢)시대의 무덤에서는 명기(明器)로 묻은 절구 서너 점이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잘록절구의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림 7은 하북(河北)에서 출토된 것으로 상부는 둥그나 아랫도리는 네모꼴이며 이 두 부분이 만나는 데는 잘록하게 좁혔다. 이와같은 모습의 절구는 후한 말기의 무덤(안징성(安徽省))에서도 나왔는데(사진 6) 높이 10.5cm, 아가리 지름 9.5cm의 석회암제(石灰岩製)이다. 그리고 그림7은 우리네 양념 절구(사진7) 그대로여서 흥미롭다. 우리 절구의 아가리 지름은 16.7cm, 높이는 21.5cm, 바닥 한변의 길이는 17cm, 깊이는 11cm이다.

이러한 명기들은 당시 그 지방에서 사용된 절구를 본 떠 만든 것이므로 한(漢)시대에는 통절구 뿐만 아니라 잘록절구도 널리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흑룡강성(黑龍江省)의 금(金)나라 터에서는 안쪽에 홈을 새긴 특이한 절구가 나왔다. 아가리의 안쪽 지름 약 30cm, 깊이 약 20cm의 화강암제로서 홈은 곡물이나 기타 물질을 더 잘 찧거나 빻으려고 고안해 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1958년 산서성(山西省) 대동시(大同市)의 괏(郭)씨 무덤에서 흰 돌을 접시 모양으로 판 절구가 출토되었다. 아가리 지름이 21cm, 높이가 9cm이고 공이(청석제(靑石製)) 또한 직경 11cm, 높이 6cm의 반원형이라 하므로 이것은 절구라기보다 돌확에 가까운 것이 아닌





가 한다(공이도 상부에 자루를 박을 작은 구멍을 제외하면 같게 그대로이다).

공이도 이때까지 메공이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곧은 공이를 썼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든 출토품이 모두 그렇거니와 한서(漢書)36 초원왕전(楚元王傳)의 목생(穆生), 백생(白生), 신공(申公) 세사람이 별로 시장에서 절구질을 하였다는 기록에 대해 진(晉)(265~420)나라 하남(河南) 사람 진작(晋灼)이 '팔을 높이 들어 공이를 들고 몸을 곳곳이 해서 쪼는다' 는 설명을 붙였는데 이러한 공이는 곧은 공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왕정(王禎)은 그의 농서(農書)(1313년 간행됨) 권 16의 농기도(農器圖)9 저구문(杵臼門)에서

‘옛 성인들은 백성에게 절구를 가르쳐서 쌀밥을 먹도록 하였다. 뒤에 절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디딜방아, 연자매, 토매 따위가 나왔다. 이들의 근본은 모두 절구에서 비롯된 것이다.(昔聖人教民杵臼而粒食資焉後乃增廣制度而爲碓爲磴爲輾等具皆本於此…’ 라 하고 절구질 모습을 나타낸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실었다(그림8).

하나는 우리네 통절구를 닮았으며 참외 모양의 곁을 표시한 것으로 미루어 나무 절구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전이 매우 얇고 몸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땅에 묻은 돌절구로 여겨진다. 그림만으로는 몸통이 땅에 묻혔는지 알 수 없으나 전 높이가 체보다도 얇으므로 이에 곡식을 넣고 쪼거나 빵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절구야말

白 杵



그림8



그림9

로 역경(易經)의 '땅을 파서 확을 묻었다' (斷木爲杵掘地爲臼…)는 내용에 꼭 들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미 설명한대로 우리에게서도 지역에 따라 돌절구를 땅에 묻어 놓고 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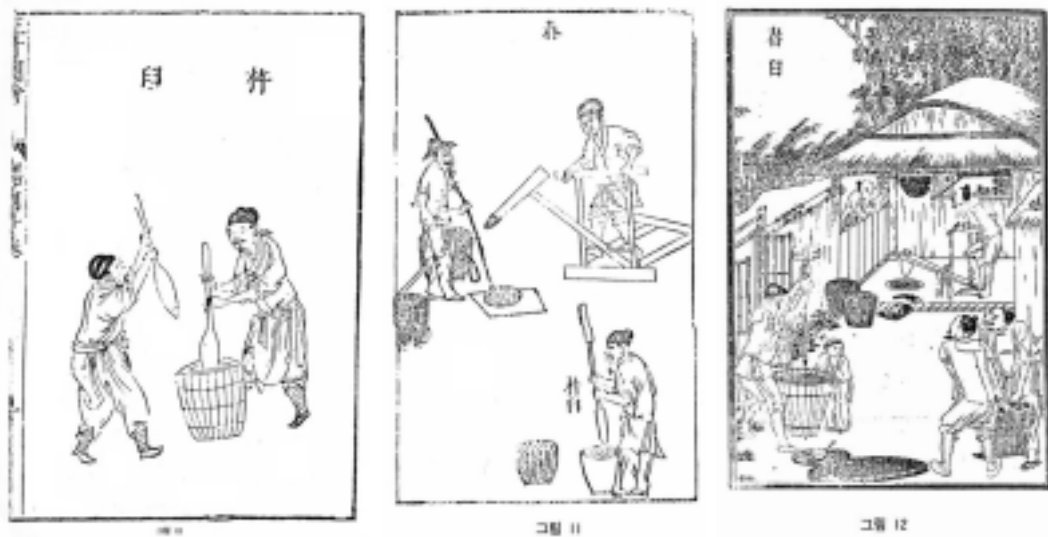
한편, 두 사람씩 마주 서서 쥐고 있는 공이의 모습이 눈을 끈다. 사람기만한 공이의 한 쪽 끝만 둥글 뭉툭하며 다른 쪽은 가운데에서부터 손에 쥐기 알맞을 정도로 밋밋하게 깎았다.

따라서 이 공이는 한쪽으로만 곡식을 찧거나 빵으며 나머지 부분은 손잡이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적어도 이 그림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4세기 무렵까지도 한쪽만 둥글뭉툭하게 깎은 공이를 썼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책임에도 명간계통본(明刊係統本)의 그림은 이와 조금 다르다(그림9).

나무절구를 찧는 이들의 공이 끝이 창날처럼 뾰족하며 길어도 매우 짧아서 곤봉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돌절구질을 하는 한쪽의 두 사람이 쥔 공이 끝은 둥글 뭉툭한 것으로 미루어 화가는 의도적으로 뾰족하게 표현한 듯 하다. 그러나 이처럼 날카로운 공이로 과연 곡식을 찧거나 빵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왕정(王禎)보다 3백여 년 뒤에 농정전서(農政全書)(1639년 간행)를 낸 서광계(徐光啓)는 농서(農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나서 '그림은 신지 않는다(유도부재(有圖不載))'고 하여 이 무렵에 공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명(明)의 왕기(王圻)는 그의 삼재도회(三才圖會)(1609년 간행)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절구질하는 그림을 실었다. 그러나 절구 형태나 공이 모습은 왕정(王禎) 농서(農書)의 것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절구에 가로 선을 쳐서 절구의 본디 모습이 죽은 셈이다(그림10).

명(明)의 송응성(宋應星)이 1637년에 낸 천공개물(天工開物)에도 절구 그림이 있다.

일본 평범사(平凡社)에서 동양문고 130으로 펴낸 수내(藪内) 청(淸) 역주본(이것은 초간본인 숭복간본(崇復刊本)을 1959년에 다시 낸 복각본(復刻本)의 그림을 옮겨 실었다)의 조제(調製)편에는 디딜방아의 설명 끝에 '끼니 때 쌀이 많이 들지않는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 공이(수저(手杵))를 만든다. 혹은 나무나 돌로 마련하여 찧는다(農炊無多者斷木爲手杵其臼或木或石以受舂也)'고 하였다.

그리고 뒤에 따로 붙인 그림에는 한 노인이 공이를 두 손으로 쥐고 절구질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저구(杵臼)'로 적었다. 절구는 통절구로서 높이가 노인의 무릎께에 이르는 매우 작은 것이다. 표면이 흰 것과 선을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그려 넣은 두 가지가 있는데, 흰 것은 돌절구이고 나머지는 나무절구로 생각된다(그림11).

공이는 매우 특이하다. 손잡이 부분을 우리네 제주도 공이처럼 직각으로 잘라 내었으며

또 이 부분이 매우 길어서 전체의 반쯤에 이른다. 따라서 공이 양 끝은 붓대 끝에 끼워 놓은 붓뚜껑을 연상 시킨다. 이처럼 손으로 쥐는 부분이 길면 절구질하는 이의 키가 작거나 크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공이가 가벼워서 그만큼 비능률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림의 절구는 작은 편이어서 이러한 공이로도 충분할 것이다.

한편, 중화총서 간행위원회(中華叢書 刊行委員會)에서 중화총서(中華叢書)로 1955년에 펴낸 도상본(陶湘本)의 것(그림12)은 앞 그림과 다르다. 절구의 위는 넓으나 아랫도리는 매우 좁으며 무엇보다 쪽널을 이어 세우고 이를 위아래 두 곳에 테를 두른 고정시킨 것이다(절구는 앞 책의 것보다 조금 커서 절구질 하는 이의 넓적다리께에 이른다). 공이 또한 매우 특이하다. 위 아래 부분의 굵기가 같으며 아래 끝에는 끝이 뾰족한 쇠붙이를 박았고 위에는 지름 15~20cm, 두께 5cm쯤 되는 둥근 나무 토막(돌일 가능성도 높다)을 끼워 놓았다. 이것은 공이 자체에 무게를 실리기 위해서 마련하였을 것이다. 공이 끝이 저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미루어 단단하게 멩쳐진 덩어리를 깨는 데에 쓸 뿐, 곡식을 찧거나 뺨는 데에는 소용에 닿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절구를 쪽나무를 이어붙여 만드는 경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림을 그린 이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와같이 표현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에 따르면(1979 : 852) 그 자신이 중국 강남에서(강소성(江蘇省) 송강현(松江縣)) '공이 위에 직경 15cm, 두께 6cm의 둥근 돌이 길이 66cm의 나무 자루에 꽂히고 아래쪽에 철제의 테를 두른 무게 약 5.5kg의 공이' 를 본 일이 있으며 '절구는 오지제로서(도기제(陶器製), 아가리 지름 38cm)쌀을 넣고 한 부인이 가볍게 찧고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이의 끝은 뾰족하지 않고 손잡이의 굵기와 같다. 앞글의 '철 테' 는 공이 끝이 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바닥에 둘러 박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공이라야만 방아질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1696년에 나온 어제 경직도(御製 耕織圖)에도 절구질 장면이 있으나 이것은 앞에서 든 천공개물 도상본(天工開物 陶湘本)의 것과 거의 같다. 절구나 공이 자체는 그대로이며 다만 그리는 사람의 위치를 뒤로 옮겨서 집주위의 길과 숲이 추가 되었을 뿐이다.

한편, 청(淸)나라 때 나온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1726년 간행)의 절구 장면도 천공개물 도상본(天工開物 陶湘本)의 것을 연상 시키나 절구의 형태나 공이 모습 그리고 그림의 구도는 다르다. 절구는 통나무 절구로서 맷시를 내리고 아랫도리로 내려 가면서 조금씩 더 깔았다. 그만큼 안정감이 적어진 흙은 있으나 이제까지 나온 어떤 그림보다도 절구답게 표현되었다. 공이는 짧은 편이며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뭉툭하여 오늘날 우리네 공이를 연상시킨다. 다른 한끝에는 두툼한 둥근 나무 토막을 박았는데 이것은 앞 그림의 그것처럼 공이에 무게를 실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눈을 크게 뜨고 공이를 두 손으로 움켜 쥔 모습이 인상적이다.

1826년에 나온 흙정 수시통고(欽定 授時通考)에도 절구질 장면을 실었으나 이것은 앞에 든 고금 도서집성의 것 그대로이므로 다시 덧붙일 것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절구 공이의 유형은



<그림>

- ① 매우 짧고 끝이 뾰족한 것(그림 9의 왼쪽)
- ② 이보다 조금 더 길고 끝이 둥글뭉툭한 것(그림 9의 오른쪽, 그림10)
- ③ 우리네 제주도 공이처럼 손잡이 부분을 직각으로 잘라낸 것(그림11)
- ④ 윗쪽에 둥근 나무 토막을 달고 다른 한 끝에 끝이 뾰족한 쇠붙이를 박은 것(그림12)
- ⑤ 앞의 것과 비슷하나 공이 끝이 둥글 뭉툭한 것(그림13)

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한 결과라기보다 단순한 지역적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제4유형은 일반적인 것이라기 보다 이형(異形)에 속하는 것으로, 화가가 잘못 그렸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네 공이와의 차이로는

- ① 공이를 한쪽만 쓰며
- ② 어느 경우에도 두 손으로 쥐고
- ③ 길이가 매우 짧으며
- ④ 길이에 비해 손잡이 부분이 지나치게 긴 점 따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네 공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 스스로 개량, 발전 시켜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것은 첫째 손잡이 부분이 잘록하고 위 아래로 가면서 조금씩 굽어져서 공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으며(중국 공이는 이러한 차이가 없어 미끄러지기 쉬우며 따라서 공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쥐어야 하므로 그만큼 일찍 피로해 진다) 둘째 두 손을 다 쓰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흔히 한 손으로만 쥘기 때문에 바꾸어 쥐어 쓸 수 있으며 셋째 한쪽은 둥글뭉툭하게 다듬고 다른 한쪽은 끝이 조금 빠르게 깎아서 용도에 따라 어느 한쪽을 쓰므로 공이 한 개로 두 개의 효과를 거두며 넷째 손잡이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비슷하게 깎아 균형을 이루었으므로 이를 들거나 내릴 때 힘이 고르게 작용되나 중국 것은 머리를 한쪽에만 붙여서 힘이 들어 올리는 쪽으로 쏠리는 결점을 지닌 것이다.

제주도 공이와 천공개물(天工開物)에 나타난 그림 11의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절구질을 하는 그림의 인물들이 모두 남자들 뿐인 것으로보아 중국에서는 이 일을 남자들이 도맡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절구는 모두 통절구로서 잘록절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절구 형태는 매우 단조로우며 크기도 우리네 것보다 작다. 중국 절구에 비해 우리 것은 다양하고 미끈한 맵시를 지녔다고 하겠다.

### 3. 일본 절구

일본의 가장 오래도니 절구는 죠몬시대(승문시대(繩文時代), 7500B.C.~300B.C.) 유적에서 나온 돌절구이다(사진8). 지름 30cm의 것으로 키도 매우 낮다. 공이는 위 아래 굽기에 큰



사진 8



사진 9

차이가 없는 곧은 공이이다.

이 절구는 중국 은(殷)(?~1100B.C.)대 하남성 유지에서 나온 돌절구(그림6)와 비슷해서 흥미롭다. 중국 절구의 크기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눈 대충으로도 거의 같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처음에 우리네 양념절구를 닮은 작은 절구를 썼으리라고 짐작된다(이미 설명한 대로 중국의 초기 절구는 거의 모두 소형이다). 돌을 다루는 연장도 빈약했을뿐더러 절구에 찼어야 할 곡물도 많지 않았던 때문일 것이다(두 나라의 돌절구가 모두 통절구인 점도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는 오래된 절구를 발굴한 예가 없으나 우리네도 이 무렵에는 앞의 두 나라 절구와 큰 차이 없는 절구를 썼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기적적(?)으로 같은 죠몬시대 유적(등여(登呂))에서 거의 완전한 모습의 나무공이와 반쯤 파손된 나무절구가 나왔다(사진9). 공이는 매우 길며 가운데 세 곳에 마디르 내어서 쓰는 이의 키에 따라 위 아래 어느 쪽이든지 쥘 수 있고 또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다. 일본인다운 착상이라고 하겠다. 절구는 잘록절구로서 전이 두터운 편이며 전 밑에서부터 아랫도리까지 깊고 둥글게 파서 제주도의 남방애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죠몬시대 후기(100A.D.~300) 유적(향천현(香川縣))에서 두사람이 절구질하

는 모습이 새겨진 구리 방울(동탁(銅鐸))이 나왔는데 절구나 공이 모두 앞의 등여(登呂) 유적 출토품을 닮아서 공이는 긴 편이나 이에 비해 절구(잘록절구)는 매우 작다(사진10). 이로써 우리는 당시 일본에서 이와같은 유형의 절구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륜무웅(三輪茂雄)은 앞의 두 가지가 모두 잘록절구인 점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공이와 절구는 예전에는 전세계 공통이었다. 동남아시아의 끈은 공이와



사진 10

잘록절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모두 같은 형태이다. ……에집트시대 벽화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1978 : 55~56)라 하였다.

과연 초기의 절구가 잘록절구였을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품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음 등장한 것은 통절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절구 제작 기술 및 연장 발달 과정상 손이 덜가는 자연상태에 가까운 통절구가 먼저 생겨났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는 까닭이다. 이를 초기의 돌절구에 견주어 보면 더욱 자명한 것이다.

또 그는 전세계적으로 잘록절구가 사용 되었고 현재 동남 아시아 및 사하라 지역의 절구 또한 잘록절구라 하였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네 절구(나무절구) 대부분은 오히려 통절구이며(나아가서 예전에 잘록절구를 썼다는 증거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제주도의 남방애만 예외이다) 베트남에서는 통절구와 잘록절구를 함께 쓰며(이병정일(二瓶貞一), 1941 : 87), 태국에서는 통절구를 (앞책 20쪽), 미얀마에서는 잘록절구를(앞 책 140쪽), 그리고 대만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쓴다(삼곡기삼랑(澁谷紀三郎), 1921 : 89).

한편, 토옥우삼랑(土屋又三郎)이 1710년에 쓴 경가춘추(耕稼春秋)(이 책의 정확한 출판연대는 불확실 하다. 주방정량(鑄方貞亮)은 1707년으로 <농구의역사(農具の歴史) 121쪽>, 삼륜무웅(三輪茂雄)은 1759년 <구(臼) 56쪽> 이라 하였으며 앞의 1710년은 반소이랑(飯沼二郎)과 굴미상지(堀尾尚志)의 ‘농구(農具)’의 내용(79쪽)에 따른 것이다)의 절구는 잘록절구이며 공이는 메공이와 끈은 공이 두 가지를 그려 놓았다(그림14). 그리고 사도양안(寺島良安)이 명나라 왕기(王圻)의 삼재도회(三才圖會)를 본 따 지은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는



<그림>

생각컨대 절구는 곡식을 찧는 연장이다. 지금은 굵은 소나무의 송진 부분으로 만든 것을 제일로 친다. 오엽송 역시 좋다. 높이는 대체로 2척8촌(二尺八寸)이며 지름은 나무에 따라 다르다(案臼舂穀器也今用松木肥脂者作之甚佳五葉松亦良太抵高二尺八寸其周匝任木大小)<sup>8</sup> 고 하면서 역시 잘록절구 및 곧은 공이 두 개(하나는 제주도형)와 메공이가 그려진 그림을 곁들였다(그림 15). 절구의 높이가 약50cm라고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에서는 18세기 초까지도 매우 작은 절구가 널리 쓰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의 삼륜무웅(三輪茂雄)은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7) 중기에 메공이가 나타나고 절구도 잘록절구에서 통절구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1978 : 62)<sup>9</sup> 고 하였는데 1804년에 나온 성형도설(成形圖說)에는 두 가지 절구와 이에 따른 공이가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통절구는 17세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는

'곧은공이와 잘록절구는 사라져갔으며...이른바 변경지대(邊境地帶)에만 남아 있는 듯하며...압도적으로 많이 남은 곳은 충승(沖繩)로서...어째서 옛 절구는 잘록절구였으며 왜 통절구로 바뀌었을까' 하는 문제에 분명히 납득할만한 대답이 나올듯 싶지 않다면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세 가지이다.

① 예전에는 집이 작아서 절구질을 하려면 집 밖으로 들어낼 수 밖에 없었다. 또 절구는 매우 귀해서 빌려써야 하였으므로 운반의 편리를 위해 잘록절구를 만들었으며...뒤에 절구를 집마다 갖추고 집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통절구로 바뀌었다.

② 메공이는 자루가 길어서 절구로부터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곧은 공이는 바짝 다가서야 하므로 무릎이 닿지않게 하려고 잘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공이가 나온 뒤로는 이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통절구로 바뀌었다.

③ 농사 규모에 따라 절구도 커졌으며 수요도 증대하여 만들기 쉽고 잘 썩지않는 소나무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잘록절구는 깨지기 쉬우므로 통절구로 바뀐 것이다.

그는 이어 잘록절구가 소장된 곳 10군데를 소개해 놓고 '경도(京都)의 일반 민가에서 곧은 공이와 잘록절구를 발견할 가능성은 우선 없다' (1978 : 60)고 하였다. 그의 말이 사실이어서 동해변에 있는 신석현 좌도(新潟縣 佐渡)섬 소목민속 박물관(小木民俗 博物館)에 소장된 절구9개는 모두 통절구였으며 1974년 동경 시내 고물 시장에 나온 절구(이들은 모두 새로 깎은 것이다) 20여 개도 모두 이와 같았다.

그가 든 앞의 이유들은 설득력을 지녔지만 딱 떨어지는 설명은 되지 못한다. 또 이웃인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네는 옛부터 지금

까지 통절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일본에서 한 시대를 마루턱으로 하여 잘록절구와 끈은공이가 씻은 듯이 사라진 사실은 앞으로도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천야원지조(天野元之助)는 중국에서의 메공이 출현에 대해 원(元)의 정계(程榮)가 그린 경직도(耕織圖)(1769년각(年刻)), 일본의 수야영납(狩野永納)이 명 송종노 각본(明 宋宗魯 刻本)을 본 따 만든 경직도, 명(明)의 편민도모(便民圖慕)(1502년 간행) 그리고 남송루도(南宋樓璣)의 경직도시(耕織圖詩)(1210년 간행)에 나타난 공이가 모두 메공이임을 지적하였다. 또 931년에서 937년 경 일본에서 편찬된 왜명유취초(倭名類聚抄) 4절구(臼)조에 '4성자원(四聲字苑)에 말하기를...절구질(용(春))은 메공이(추(搗))로 한다' 는 내용이 있음을 들고 이 책은 진(晉)나라 갈홍(葛洪)의 '자원(字苑)' 이라고 지적하면서 '메공이는 진대(晋代)에 이미 성행된 듯 하다' 고 덧붙였다(1979 : 852~853). 앞의 내용은 중국에서의 메공이 출현에 관한 언급이지만, 나는 왜명류취초의 기록이 일본의 사정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메공이를 4성자원(四聲字苑)에서 끌어대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서 이미 사용되었기에 들어놓은 것은 아닌가. 왜명유취초(倭名類聚抄)는 일본 최초의 중국어 사전으로 한어(漢語)를 32부(部) 249문(門)으로 나누고 한문으로 음과 뜻을 설명한 책이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 없는 사물 이름을 이에 넣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를 읽는 사람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사전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공이는 일본에서 10세기 경에 이미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경가춘추(耕稼春秋)나(그림14)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보면(그림15) 절구는 잘록절구 그대로 이나 공이는 끈은공이와 함께 메공이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메공이의 출현은 적어도 에도시대 중기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메공이가 나타나고 절구도 잘록절구에서 통절구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라고 한 삼륜무웅(三輪茂雄)의 설명(1978 : 62)은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나는 메공이의 등장이 잘록절구의 통절구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주요 원인으로 보고자 한다.

일본 절구 가운데에는 제주도의 남방에 또는 돌방애와 깊은 관련을 보이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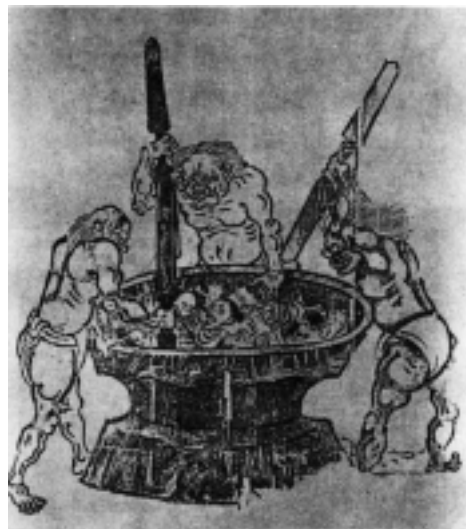


사진 11

사진 11



겸창시대(鎌倉時代)(1192~1333)에 그려진 춘일권현영험기증권(春日權現靈驗記繪卷)이 그것으로(사진11) 세 귀신이 절구에 담긴 사람을 공이로 내려 쥘는 장면을 묘사하였는데 절구는 물론 공이조차도 제주도의 것 그대로이다. 절구 높이는 귀신의 아랫배께에 이르나 윗지름은 공이 길이보다도 너르고 윗은 깊은 편이다. 허리는 잘록하며 받침은 둥글다. 재료가 돌인지 나무인지 알 수 없으나 제주도 남방애보다는 돌방애에 더 가깝다. 이러한 형태의 절구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도 매우 드문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정상뢰수(井上賴壽)의 경도민속지(京都民俗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삼륜무웅(三輪茂雄)의 구(臼) 60쪽의 것 재 인용).

‘청수사 성취원(淸水寺 成就院)부엌 옆에 산모(山姥)(깊은 산에 살면서 괴력을 발휘 한다는 전설적인 여자 필자주)절구가 있다. 돌절구로서 이에는 항상 금줄이 쳐 있다. 이 절구는 산모(山姥)가 낙동산과(洛東山科)쪽에서 머리에 이고 지금의 말 때는 곳에 가져왔다고 전한다. 12월 하순에 이 절구에 떡을 치는 행사가 벌어진다. <공이는> 토끼가 떡을 치는 그림에 보이는 공이로서 가운데를 쥐고 위 아래로 쥘는다. <다만 처음과 끝에만 이를 쓰고 그 외에는 보통 공이를 쓴다> 이 떡은 두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동사(東寺)에서도 신을 모신 가마(어여(御輿))에 <떡을> 바칠 때에도 유명한 절구를 가지고 같은 모양의 공이로 친다고 한다’ .

삼륜무웅(三輪茂雄)은 실제로 청수사 성취원(淸水寺 成就院)에 가서 이 절구를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절구는 틀림 없는 잘록절구로 여럿이 쥘으며 앞의 춘일권현영험기(春日權現靈驗記)에 나타난 지옥 절구와 흡사하다. 지름에 비해 키는 매우 낮다. 허리 아래 부분은 12면으로 깎았으며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나무확(매목(埋木))이 있다. 나무는 벌레가 심하게 먹어서 일부 떨어져 나갔으며 떡을 칠만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절구로서 보존된 덕택으로 이 귀중한 자료가 지금까지 전한다’ (1978 : 60~61)

그리고 그는 이 절구의 실측 결과를 적었는데 이를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남방애와 견주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남방애나 돌방애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나 어쨌든 앞의 표처럼 두 나라 절구의 크기나 형태가 거의 같은 점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형태상 다른 점을 굳이 든다면 제주것은 아랫도리(받침)가 네모꼴이고 확부분만 움푹 패였으나 청수사의 것은 하부를 12면으로 깎고 절구 바닥을 둥그레하게 다듬었으며 돌방애임에도 나무확을 박은 사실 뿐이다).

또 청수사의 돌절구를 전설상의 인물(산모(山姥))이 머리에 여 날랐다는 민담의 모티브는

제주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남제주군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에서 전승되는 당팻당장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내용	소장처	
	제주대 소장품(cm)	청수사 소장품(cm)
지름	122	113
높이	68	52
확지름	26	30
확깊이	11	10
전두께	9	4.5
전깊이	19	23

그는 한끼에 한말(또는 서말) 밥을 먹는 장사로 어느 해 남방애를 만들어 팔아 주린 배를 채우려고 한라산에 올라갔다. 비를 맞으며 방애를 파던 중 산감(山監)이 나타나자 반쯤 판 방애를 번쩍 들어 머리에 쓰고 두어 반쯤앞으로 나서며 '비를 맞지 않으려면 이리 오시지' 하였더니 산감이 놀라 달아났다는 것이다(현용준, 1977 : 194).

이 두 개의 동일한 모티브는 어느 한 곳의 절구가 다른 곳으로 전래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수사 절구 경우 금줄을 치고 떡을 칠 때 이에 딸린 공이를 처음과 마지막에만 썼으며 이에 찡는 떡이 두통에 효험이 있고 떡 치는 행사를 일정한 시기에 벌였다는 사실 등은 이 절구가 외지에서 들어왔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성시 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춘일권현영험기(春日權現靈驗記)에 나타난 절구나 경도 청수사(京都 清水寺)의 절구는 우리네 제주도인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일본 최북단에 거주하던 아이누(Ainu) 족의 절구와 구주 남부 및 최남단의 류우큐일대 절구 모습을 살펴 본다.

아이누는 일본 북해도 및 화태(華太)에 거주하던 한 종족이다. 유럽 인종의 한 분파로 몽고인종의 피가 섞였으며 언어는 형태학상 포합어(抱合語)에 속한다. 털이 많고 남녀 모두 귀걸이를 하며 여성은 특히 문신(文身)을 즐긴다. 생업수단이 수렵에서 농업으로 바뀌면서 고유의 습속을 잃었으며 특히 명치(明治)이후로 일본인과의 혼혈이 진행되어 순수한 아이누족은 수백명에도 못미친다.

절구를 이르는 아이누말 '니슈' 는 일본 동북지방 사투리인 '우시' (표준말은 '우스' 이다)에서 비롯되었다. 니슈보다 더 오랜 말에 '우다' 또는 '유다' 가 있으나 우다는 절구의 (일본어) 어원인 '우쓰' 에서 왔으며 '유다' 는 '우다' 의 변형이다.

따라서 아이누의 절구는 매우 오래 전에 일본에서 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절구는 침(楛)나무 칠엽수(七葉樹), 주목(朱木) 따위로 만들었으며 이밖에 졸참나무, 떡갈나무, 참피나무, 밤나무도 이용 하였다. 나무가 부드러우면 파기는 쉽지만 그만큼 오래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단단한 나무는 곡물이 부스러지는 등의 결점이 따른다. 고래등뼈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몇 군데에서 발굴되었으나 이것은 우리네 양념절구처럼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절구는 각집의 남자들이 스스로 파기도 한다.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한여름쯤 그늘에 말리며 도끼 따위의 연장이 없던 때에는 윗쪽에 우묵한 구멍(깊이 10cm 쯤)을 내고 이에 불을 담아 태운 다음 굵어 내고 다시 태우고 굵는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우리 나라 강원도에서는 참나무 굴뚝을 이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절구를 만드는 데에 반년 이상도 걸렸다. 때에 따라 곁에 여러 가지 조각을 베풀고 붉은 칠도 하였다. 절구는 태제(熊祭)나 장례식에 쓸 제주를 빚기 위한 조나 피를 찡는 용구일 뿐만 아니라 제기(祭器)로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 까닭이다. 또 절구의 허리를 잘록하게 판 것도 제기로서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배려의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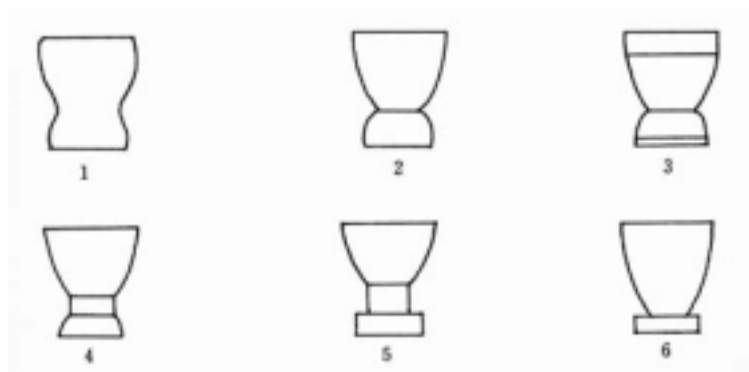
아이누 절구의 형태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이 가장 오랜 것으로 윤곽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잘록해졌다. 몸과 바닥이 한 몸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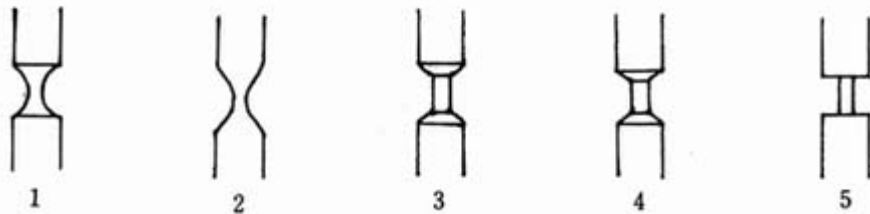
②는 ①보다 뒤에 나온 형식으로 몸과 바닥이 분리, 독립된 형태를 보인다.

③은 ②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몸체 상부를 각지않고 예리한 연장으로 훑어내렸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한 직선형을 이루었다.

④도(②처럼) 아랫도리를 둥글게 각아내는 과정을 생략, 기둥처럼 남겼으나 몸체와 바닥은 이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것과 3형식 사이의 전후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지역적인 분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1, 2, 3, 4, 5, 6>



<그림 1, 2, 3, 4, 5>

⑤는 ④형식의 변형으로 툽으로 잘라 낸 바닥이 특징적이다.

⑥은 ②형식의 극단적 생략형으로 바닥은 ⑤처럼 툽으로 잘라 내었다.

제①형식이 고분시대(古墳時代 3세기~6세기 중반)의 흙인형(치륜(埴輪))에 나타난 절구를 닮았고 제⑤, 제⑥형식이 북해도 연안의 오래된 일본인 집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이누 절구는 형태상 일본 절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기원이 매우 오래임을 알 수 있다.

절구의 크기는 차이가 많으나 아가리 지름은 대체로 45cm~54cm이며(평균 48cm) 높이는 60cm~65cm(평균 62cm)이다. 깊이는 보통 21cm~24cm이나 많이 쓴 것은 38cm에 이른다.

공이는 단단하면서도 무거운 나무로 깎는다. 통나무는 틀어지거나 터지기 쉬워서 굵은 나무를 쪼갠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우리 나라 전북 장수에서도 이와같이 한다). 예전에는 손잡이 부분을 손에 쥐기 편하도록 기름하면서도 잘록하게 정성껏 깎았으나 근래에는 툽으로 직각이 되게 잘라 낸다.

공이는 곧은 공이이나 미생시대(彌生時代)(B.C.3세기~A.D.3세기)유물에 나타난대로 두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고 고분시대 이후에 생겨난 외손 공이에 속한다. 따라서 길이가 비교적 짧으며 손잡이 부분도 좁고 작다. 공이는 위 아래 구별 없이 형태나 길이가 거의 같으나 때로는 한쪽을 좁고 길게 해서 탈곡에만 쓰고 둥글 뭉툭한 쪽은 곡물을 뺏는데 쓰기도 한다(우리 나라 경북 상주에서도 이와같은 공이를 쓴다).

공이의 손잡이 부분도 절구처럼 시대에 따른 변천을 보이는데 이를 다음의 5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가장 오래고 또 전형적인 공이로서 손잡이와 양 끝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손에 꼭 맞을 뿐 아니라 내려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미끄러져서 오랫동안 써도 덜 아프다.

②는 ①에 이어 나타난 형식으로 손잡이와 몸의 경계가 매우 뚜렷하다.

③은 ②형식이 다시 형식화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윤곽이 뚜렷한 직선형을 이루었다.

④는 ③의 퇴화 형식 또는 ③형식이 ⑤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이는 형식이라고 하겠다.

⑤는 가장 단순한 최근 형식으로 톱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몸과 손잡이의 경계가 직각을 이루었다. 이러한 공이를 만들기는 쉽지만 오래 쓰면 손이 아픈 결점이 있다.

가장 오랜 ①형식이 고분시대 토제(土製) 및 석제(石製)의 모조품(공이)을 닮았고(손잡이와 몸체가 미분화된 방망이 형식) 근래 것인 ⑤형식은 북해도 연안의 옛집에서 발견되어 아이누의 절구 공이가 일본의 그것과 관계가 깊고 그 기원도 매우 오랜 사실을 알려 준다.

공이 길이는 일정하지 않아서 긴 것은 짧은 것의 두 배가 되기도 하나 대체로 90.9cm~93cm이다(평균 90.5cm). 손잡이 부분은 짧은 것이 7.8cm, 긴 것이 24.8cm로서 형식에 따라 차이가 크다. ①, ②, ③형식은 길며 ④, ⑤형식은 비교적 짧으나 평균은 13.9cm이다. 한편 머리 지름은 7.57cm~9cm의 것이 가장 많고 손잡이 지름은 보통 3.6cm이다.

한 집에 절구가 둘 있을 때, 바닥이 깊은 것은 많이 담길 뿐 아니라 힘껏 내리 쥘어도 곡식이 부스러질 염려가 없어 탈곡에, 얕은 것은 가루를 내는 데에 쓴다. 공이를 절구 한 틀에 2~3개를 갖춘다.

공이는 흔히 오른손으로 쥐지만 능숙한 이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쓴다. 그러나 두 손으로 쥐는 일은 없다.

절구질은 넷 또는 여섯 사람까지도 하나 셋이 쥘는 것이 보통이며(태제(熊祭)나 장례식 때는 반드시 셋이 한다) 이때에는 '헛사, 오, 호이' 하는 소리를 내는데 연장자가 선소리를 먹이고 나머지 사람이 받는다.

보통 크기의 절구로 한번에 닳되 썬을 쥘려면 피(漕(稗))의 경우 한 사람이 3시간, 조는 그의 반쯤 걸린다. 기계보다 절구로 쥘으면 더 깨끗하고 맛도 좋아서 조와 피만은 비교적 최근까지 절구를 이용하였다.

구주(九州)남부에서는 여러 사람이 된장 콩이나 떡을 치는 큰 절구와 한 두 사람이 쌀이나 조의 껍질을 벗기거나 대끼는 데에 쓰는 작은 절구 두 가지를 쓴다. 주재료는 소나무로 높이 51cm, 지름 40cm 정도의 크기이다.

공이는 메공이와 곧은공이를 함께 쓴다. 곧은 공이의 경우 손잡이 부분은 민민하면서도 훌쩍하게 다듬은 것으로 가운데를 두 손으로 쥐고 조금 비스듬히 쥘는다. 절구질은 보통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다. 룡아도현 시랑군 표야정(鹿兒島縣 始良郡 栗野町)에서는 정월 달에 몇 집이 품앗이를 조직, 떡을 치거나 이를 손으로 떼어서 빗는 일 따위를 공동으로 한다. 이때 절구나 공이는 그 집의 것을 쓴다.

같은 현의 간속군(肝屬郡)에서는 여름에 콩을 거둔 다음 마당이 너르고 큰 절구가 있는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해 장 담글 콩을 한꺼번에 찜는다. 이에 쓰는 절구는 높이 62cm, 아가리 지름은 57cm정도이다. 공이는 곧은공이로서 길이는 60~70cm, 한쪽만 쓰기 때문에 둘 때에는 그쪽을 위로 해서 세운다. 산벗나무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만든 통절구도 있는데, 벗나무 특유의 광택으로 매우 아름답다.

류우큐에서는 절구 하나로 쌀을 찜거나 뺑기도 하지만 쓰임에 따라 두 개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집도 있다. 흔히 큰 절구는 쌀을 찜는 데에 작은 절구는 쌀을 대끼거나 뺑는 데에 쓴다. 소나무 절구가 많다.

이곳 절구의 형태는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형(석원시 소병도(石垣市 小浜島))

아랫도리 3분의 1쯤 되는 곳을 잘록하게 파고 이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같은 모양으로 깎아 내었다.(③이나 ④형처럼) 꽃잎 모양의 주름은 붙이지 않았다. 잘록한 모양은 맵시나 여성을 연상 시킨다. 흑도(黑島)나 파조간(波照間)의 절구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받침에 해당하는 아랫도리는 같지만 허리 윗부분은 조금 덜 깎아 내어서 통통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②형에 가까운 요소도 있다. 높이 67~68cm.

②형(어나국(與那國))

허리 아랫도리는 ①형에 가까우나 윗부분은 덜 깎아서 수평으로 잘라낸 감이 있으며 상부를 바로 옆에서 보면 네모꼴을 이룬다. 이것은 선이 매우 뚜렷해서 무뚝뚝 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준다. 높이 56~57cm.

③형(류우큐 본도)

류우큐 본도에 많은 절구로 대체로 크다. 높이 50cm 전후이며 아가리 지름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랫도리에 7~8개의 꽃잎을 새기며 귀가 달린 것(뒤에 설명)도 있다.

④형(고궁(古宮)일대)

허리 부분이 덜 잘록하며 통절구에 가깝다. 높이 50~60cm.

⑤형(국두촌오(國頭村奥), 안파(安波), 윤평옥(尹平屋), 이시명(伊是名)일대)

아랫도리 5~6cm되는 곳에서 자르고 윗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떨어 내려와서 바닥 지름이 아가리 지름보다 크게 보여 매우 묵직한 느낌을 준다.

이시명(伊是名)의 것은 높이 49cm, 아가리 지름 58cm이다.

③형이나 ④형의 절구 가운데 아랫도리에 붙인 귀(그림 ③허리 왼쪽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서 옮기기 좋도록 만든 것도 있으나 근래에는 귀를 전혀 붙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아랫부분을 잇는 목을 두거나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곳 섬들에서는 절구를 전문가가 돼지 밥통과 함께 만든다(제주도에서도 돌절구와 돼지



<그림 1형 2형 3형 4형 5형>

밥통은 한 전문가가 만든다. 절구 높이는 톱으로 정하며 큰 도끼로 대강 다듬은 다음 구멍을 내어 파낸다. 주위는 손도끼로 손질한다.

석원시(石垣市)에서는 절구질을 할 때 벌이고 선 사람의 두 다리 주위를 쥔 끈을 편 길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라고 여긴다.

공이는 손잡이 부분을 톱으로 직각이 되게 잘라낸 것과 기름하게 발라낸 두 종류를 쓰나 뒤의 것이 더 오래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이 양끝의 모습은 서로 달라서 쌀을 대끼는 쪽은 편평하나 찡는쪽은 둥글 뭉툭하다(우리나라 공주군 일대에서도 이와같은 공이를 쓴다).

길이 140cm, 지름 8cm의 것도 있으나 길이 60~100cm의 것이 많다.

메공이는 매우 무거워서 남성들만 쓴다. 길이 53cm, 지름 18cm, 자루길이 79cm자루와 몸 사이에 췌기를 치며 바닥은 조금도려 낸다. 공이는 내려치고 나서 그대로 들어올리지 않고 절구 마구리 쪽으로 뉘어 톱치면서 올린다. 이렇게 하면 묻은 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벼운 느낌도 들고 두 사람이 찡을 때 공이가 서로 부딪힐 염려도 없다. 쌀 두되를 찡는데에는 공이질을 2백번 쯤 한다.

1682년에 나온 백성전기(百姓傳記)의 저자는 15권에 메공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메공이는 오로지 가시나무(檜の木)로 만든다. 길이 약 45cm, 둘레 약 36cm로서 끝을 조금 가늘게 깎는다. 자루 길이는 약 76cm이며 무게는 7.5~11kg이다. 메공이는 절구 하나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찡는다...’

나무로 깎은 메공이의 무게가 7.5~11kg이라 하니 이는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충남 아산의 돌메(6.8kg)나 쇠메(5.7kg)보다도 더 나가는 것이다.

같은 책에는 절구에 관한 다음의 기록이 있다.

‘절구라는 것은 어떤 집에도 한 개나 두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곳에 따라 형태는 매우 달라도 오직 잘 찡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절구감으로는 오랜 소나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다른 나무로 만들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며 터지고 만다. 잡목으로 찡을 때에는 바닥을 깊이 파고 소나무로 깎은 확을 박아 써야 한다...’

본문에는 ‘작은 절구(りすこ)’라 하였으나 이는 우리네처럼 바닥이 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발처럼 깎은 단단한 나무를 박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누 절구는 임선무(林善茂)의 ‘아이누의 農耕文化’ (1965年 刊)에서 구주 남부(九州 南部)의 절구는 소야중명(小野重明)의 ‘南九州の民具’ (1969年 刊)에서 그리고 류우큐 일대의 절구는 상강주균(上江洲均)의 ‘沖繩の民具’ 1980年年刊)에서 자료를 뽑았다.

#### 4. 절구의 민속

경남 지방에서는 새 해 첫 소날(상축일(上丑日))에 절구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소가 골이 아파 죽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 날은 소의 명절이라고 여겨서 쇠죽에 특별히 콩을 많이 넣어 잘 먹이며 일을 시키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첫 소날에 절구질을 금하는 것은 소가 일을 많이 하는 짐승이므로 모처럼의 명절날 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 소도 기분이 상하게 되리라는 짐작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경기도 지방에서 이날 연자방아나 디딜방아를 쪼으면 소가 기침을 하리라고 여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또 이 날 연장을 만지면 쟁기의 보습이 부러진다고 여기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소 날에 도마질을 하지 않는다. 도마질은 쇠고기를 다질 때 많이 하게 마련이므로 역시 이를 소가 좋지 않게 여기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밖에 경남 지방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오전에 아이들이 각성(各姓)만이인 세 집을 돌아다니며 조리에 밥을 얻어 담아서 자기 집 절구통에 들어앉아 먹으면 그 해의 액운이 사라지고 운수가 좋으리라고 여긴다 (동쪽으로 뺀 디딜방아 가지에 역시 동쪽을 향해 앉아서 먹는 곳도 있다). 밥을 먹는 방법은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어떤 데에서는 제 집 개에게 한번 주고 자기도 한 번 먹고 하는 일을 세 번 거듭하며 다른 곳에서는 개를 보고 '아바아바' 하고 세 번 부른 뒤에 자기가 먹기도 한다.

여러 집에서 얻어온 음식을 절구통에 들어 앉아서 먹는 풍속은 이렇게 함으로써 절구가 지닌 어떤 신통력이 재앙을 물리쳐 주리라고 여기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절구를 신성하게 여기는 관념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또 다른 보가를 아직 찾지 못하였으나, 일본에는 매우 널리 퍼져 있어 눈을 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절구 공이를 남성의 심볼로 여긴다. 관소리 변강쇠전의 남성 성기를 이에 비겨 '고초 쪼던 절구텐가 검붉기는 웬일인가' 하는 귀절이 그것이다.

일본 장야현(長野縣) 지방의 다선광사 본존불(多善光寺 本尊佛)은 옛날 절구 위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또 후목(厚木)지방의 후목신사(厚木神社)나 강도(江島)신사에서 신위를 모신 가마를 메고 행진 하다가 쉴 때에는 반드시 절구 위에 올려 놓았다. 정월 달 새해의 신(세신(歲神))을 맞이할 때에는 절구를 제단으로 삼았으며 이에 경병(鏡餅)이나 정화수를 바쳤고 묵은 해를 보낼 때에는 신불(神佛)에 떡을 바치는 동시에 절구에도 이와같이 하였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절구를 일으켜 세워 떡을 치며 절구를 엮어놓고 새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은 모두 절구를 신성한 존재로 여긴 데에서 온 것이다.

절구에 관한 민속은 일본에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집을 새로 지어 살림살이를 옮길 때나, 집에 불이 났을 때에는 절구를 먼저 가지고 나오며 또 절구를 매우 귀중한 물건으로 여겨서 집 안의 중심 기둥(대흑주(大黒柱)) 옆에 둔다.

절구에는 신통력 뿐만 아니라 정화력(淨化力)도 있다고 믿어진다. 장례식에서 주검을 내간 다음, 집 가심을 할적에 먼저 절구를 굴리거나 옆으로 뉘어놓은 다음에 시작한다. 장지에서 돌아온 사람은 절구를 엮어놓고 이 위에 소금을 엮은 다음, 이 앞을 지나는 것으로 깨끗해졌다고 믿는 것이다.

절구를 여성으로 공이를 남성으로 여기며 혼인, 해산, 육아와 관계된 풍습도 널리 퍼져있다.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서는 순간, 입구의 좌우에서 절구질로 떡을 치기 시작하면 신훈 첫

날밤에 절구 공이를 베고 잠을 잔다. 난산(難産)일 때는 남편이 절구를 지고 집 주위를 돌며 또 임신부가 절구를 안고 있으면 순산한다고 여긴다. 시집 갔던 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근친을 울 적에 그 아이를 절구 속에 넣었다가 들어내면 건강하게 자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 경남 지방에서 대보름날 얻어온 밥을 절구 안에 들어가서 먹는 풍습과 비슷하다).

절구가 오래 되어 못쓰게 되면, 이를 쪼갠 다음 맞은 편에 있는 세 이웃집에 보내어 태우게 한 다음 재를 돌려 받기도 한다.

류우큐의 석원도(石垣島)에서는 후아아새가 밤중에 지붕에서 울면 불길하다고 믿어서 주문을 외우면서 절구를 두드려 쫓는다. 류우큐에서는 남자 어린이가 앉아서 오줌을 누면 절구를 껴안고 집 주위를 7번 돌아야 한다고 겁을 준다. 장례식을 치른 날밤에 절구나 나무통(桶)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곳도 있다. 이 섬의 미리촌(美里村)에서는 절구의 귀가 매우 밝으므로 부엌 구석의 불신(火神)앞에 마주 놓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불신은 그 집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이지만 운이 나쁠 때에는 귀머거리가 되는 까닭에 잘못 판단할 우려가 많지만 절구는 귀가 밝아 이를 막아 주리라고 믿는 까닭이다.

아이누들은 큰 바람이 불 때 들보에서 내린 줄을 십자(十字)로 엮고 절구를 옆으로 눕혀 뿔뿔을 지운 다음 '절구신이며 집을 바람이 가져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절구의 여신과 집의 여신은 바람에지지 마소서' 하고 축원한다. 또 지진이 날 적에는 공이를 쥐고 '등골을 부숴버린다' 면서 땅을 쥘는다. 옛부터 절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가난해진다고 믿었으며 못쓰게 되더라도 패서 아궁이에 넣거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더 이상 쓸수 없는 절구와 공이에는 괴물들을 감고 술을 바친 다음 이에 깃든 신들을 천신(天神)에게 보내는 의식을 베풀었다. 혼인을 하면 남자는 절구와 공이를 정성스레 깎아서 아내에게 보낸다. 이를 '맛도에이가라' 곧 '내 마누라로 삼는다' 는 뜻이다.

절구에 관한 민속은 동남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스마트라 남부의 파스마 지방에서는 신령을 맞이하는 주구(呪具)로서 전단(梅檀) 나무로 만든 작은 절구를 사용한다. 자바인은 일식(日食)이나 월식 현상이 천상(天上)의 괴물이 해나 달을 잡아먹어서 생겼다고 믿어 절구를 두드린다. 괴물은 이 소리에 놀라 달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루손도의 데기안족은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주술을 베풀 때 제물을 절구 위에 놓고 무당이 주문을 외우면서 주위를 돈다. 보르네오의 다야크족은 절구 공이를 세 도막 내어 묘혈(墓穴)에 넣으며 같은 곳의 카얀족은 절구를 관에 넣기도 한다. 마라카 반도의 말레이인 사이에서는 혼인식 때 신랑 신부가 거꾸로 엮어 놓은 절구 주위를 세 번 돌고 나서 걸터 앉도록 한다.

자바 사람들은 해산 때 아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안산(安産)한다고 여기며 만약 아버지가 없거나 죽은 경우에는 절구 공이 한쪽에 두건을 씌우고 이를 임신부 옆에 놓아서 아버지에 대신한다. 난산(難産) 때 임신부가 절구를 껴안으면 순산한다는 민속은 일본의 북아이누족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절구를 여성, 절구공이를 남성으로 여기는 관념은 여러 민족 사이에 널리 분포한다.

## 참고문헌

내 책, 1986, 韓國農器具放, 韓國農村經濟研究所  
韓國民俗大觀 4 歲時風俗, 傳承놀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1)



현용준, 1977, 제주도 전설, 서문당  
황철산, 1960,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제가승 부락)의 문화와 풍습

#### 漢書

古今圖書集成, 1726  
徐光啓, 1639, 農政全書  
宋應星, 1637, 天工開物  
御製耕織圖  
王圻, 1609, 三才圖會  
王禎, 1313, 農書  
欽定授時通考, 1826

#### 日書

臺灣總督部 植産局, 1921, 臺灣之農具  
飯沼二郎, 堀尾尙志, 1976, 農具, 法政大學出版部  
寺島良安, 1804, 和漢三才圖會  
成形圖說, 1804  
三輪茂雄, 1978, 白, 法政大學出版部  
上江洲均, 1980, 沖繩の民具, 慶友社  
小野重明, 1969, 南九州の民具, 慶友社  
二瓶貞一, 1941, 佛印, 泰, ビルマの農機具, 新農林出版社  
林善茂, 1965, アイヌの農耕文化, 慶友社  
鑄方貞亮, 1965, 農具の發達, 至文堂  
天野元之助, 1979, 中國農業史研究, 御茶の水書房  
土屋又三郎, 1710, 耕稼春秋

#### 英書

Joseph Needham, 1965,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